

## 국보관

### 목조천수관음보살입상

#### 국보

높이 5.2m 의 이 천수관음보살상은 13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식당의 본존으로 모셔져 있었습니다. 714 년에 지어진 식당은 두 차례 화재로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번은 다이라노 시게히라(1158~1185 년)의 군대에 의한 난토 야키우치[‘난토(南都: 남쪽의 도움)’란 호쿠토(北都: 북쪽의 도움) 즉, 교토와 대비하여 남쪽에 위치한 나라를 가리키는 별칭, 야키우치(燒討)는 화공을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재건된 식당은 수백 년의 긴 세월 동안 무사했지만, 메이지 시대(1868~1912 년)에 일어난 폐불훼석 운동으로 인해 1874 년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거대한 상은 무사히 살아남아 1959 년 식당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고후쿠지 절 국보관에 다시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관음보살은 불교에서 자비를 상징합니다. 천수천안의 관음[관음(觀音)은 ‘세상의 소리(音)를 관(觀)찰하는 자’라는 뜻]은 이 자비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관음은 중생의 외침을 들으면 모든 방향을 바라보는 눈(실제로는 13 개의 머리에 총 26 개의 눈이 있음)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재빨리 발견하여 42 개의 손(합장한 2 개의 손과 각각 25 개의 역할을 갖는 40 개의 손으로 총 1000 개)에 쥔 도구나 무기를 사용해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과 구제를 제공한다고 여겨집니다.

1181 년에 일어난 대화재로 식당의 본존이 소실된 다음 해, 그를 대신할 상을 만들자는 계획이 세워지고 불상제작자인 세이초가 제작의 지휘를 맡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계획은 무산된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적기 때문에 제작이 언제 재개되어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상 내부에 1217 년이라는 날짜가 있는 반야심경 사본과 1229 년이라는 날짜가 있고 산스크리트어로 적힌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다라니 사본 등 수많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에 담겨 있던 다른 물건들과 함께 이 두 권의 사본은 상의 제작이

재개된 시기나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에 관해 어느 정도의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을 만들 당시에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보통보다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며 많은 신자들과 후원자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